

TICA Asia East Region 여러분께

이번에 Asia East Region 디렉터에 출마한 이시무라 아키코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TICA의 쇼에 출전하였으며 2019년 현재까지 샤프룩스(Chartreux)라는 품종의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C.A.T Credo 클럽의 회원으로서

TICA의 사무 업무, 캣쇼 준비 및 운영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쿄 캣 클럽(Tokyo Cat Club) 사무국의 일원으로써

클럽 회원들에 대한 각종 서류 지원, Web 사이트 상의 정보 제공 등,

도쿄 캣 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캣 클럽 사무국에 종사하면서 정보 수집과 정보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TICA Asia East Region 디렉터에 출마하게 된 것은 클럽 사무국의 일원으로서 23년간 쌓아 온 다양한 경험으로 TICA Asia East Region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도 미리미리 대처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디렉터로써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힘든 일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성격이며

매사에 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되 때로는 분명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Asia East Region의 디렉터가 되고자 합니다.

Asia East Region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1. 클럽 대표 및 심사위원 회의의 설치

게시판에 제기된 의제에 대해서도, 때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일도 필요합니다.

회의 외에도 평소에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메일링 리스트와 같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것입니다..

Region의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의견, 질문 등을 다루는 코너를 설치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Asia East Region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 한국 회원의 의견, 희망 등도 적극적으로 다룬다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Region 이지만 지리적인,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 제도 때문에 동일 지역내 쇼에 참가하는 기회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한국 회원들은 TICA Regional Award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의 Region, 하나의 TICA 로써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들을 경청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획득의 용이성을 위해 Asia East Region 웹사이트의 영어 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어 버전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Regional Award 의 공지와 Winner 에 대한 공식 초대도 한국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Award Banquet 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Regional Winner Rosette 을, 모든 수상자에게 Banquet 의 참여여부와 관련없이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회원들의 캣쇼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Asia East Region 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Asia East Region 디렉터라는 임무는 책임도 무겁고,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스스로 이 중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오가 서게 되어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기권만은 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저에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8월 길일 도쿄 캣 클럽 소속

이시무라 아키코